

왜 독서문화진흥이 필요한가

유재천

한림대 교수 · 언론정보학

우리에게 있어 국민독서문화 진흥이라는 과제는 출판산업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독서가 인류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며 전승하는 구실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을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독서문화 진흥이 필요한 까닭은 다양할 것이지만, 그동안 논의된 성과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 국한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사회에서 독서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쇄매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영상매체는 신체의 오관을 통해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생각할 겨를 없이 이미지를 수용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쇄매체를 주로 접하는 사람은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하는 인간형으로 주조되고, 주로 영상매체에 노출되며 성장한 세대는 생각하기에 앞서 행동하는 인간형으로 만들어진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문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인간형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영상매체 시대가 초래한 불균형을 지양하기 위해 독서를 권장하고 생활화하는 풍토의 조성과 이를 위한 노력이 마땅히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독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책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보급됨으로써 로마 가톨릭교회가 지배하던 중세 전제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 나치스의 추리소설 금독 조치가 지니는 의미도 음미해 볼까 한다. 이런 사례들은 인류의 역사상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제주와 권위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책의 이차적 영향력은 독서가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는 데 있다.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춘 통찰력 있는 시민, 사물과 현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될 수 있다면, 그러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내면화시켜주는 독서야말로 장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독서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국제무역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조건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거나 혹은 설득력을 가진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경쟁력을 국제무역에서의 제품의 질과 가격의 우위확보로만 연관시키는 것은 상황을 오도하기 쉽다.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제고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활용하고 재창조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서야말로 그런 일에 합당하다. 보다 실리적으로 본다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21세기의 경우 컨텐츠(contents) 산업의 발달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때, 독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컨텐츠 산업은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책이라는 인쇄매체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독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 이 글은 '98 서울국제도서전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 가운데 별첨정리한 것입니다.

표지 인터뷰 2 농사 짓고 책 읽는 삶을 지킨다

독서운동 펼치는 농사꾼 서재환씨

초점 4 출판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표권'

특집/일본 6 '일본' 문학도 없고 일본 '문학' 도 없다 – 이문재

8 한국과 일본, 그 숙명적 관계 – 손승철

10 일본을 알면 '한국' 이 보인다

11 일본의 역사, 무엇을 알고 있는가 – 정재정

12 다양하게 접해야 할 일본사상의 정수 – 최재철

13 일본관련 출판통계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인터넷 출판향해 7 일본의 TRC도서관 유통센터 사이트 – 박선영

출판계 소식 10 '98 알뜰도서전 개최 · 외

출판화제 14 학문과 연대하는 '녹색'의 사유

15 '인간' 이 있는 학교를 위하여

16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역사인물 이야기

신간읽기 17 김옥랑 엮음 『한국의 나무꼭두』

이달의 출판 광고 18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선을 ⑤

가상 대담 20 도전과 응전의 문명사가 토인비와 대화 – 강기철

만화 21 책과 오대리 – 박시백

해외 서점 탐방 22 소박하지만 신념이 있는 공간 '모시쿠샤' 서점 – 김은지

책갈피 산책 23 박광용 지음 『영조와 정조의 나라』를 읽고 – 김기협

화보 24 '98 서울국제도서전의 이모저모

서평 2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 이종범

양재혁 『동양철학 서양철학과 어떻게 다른가』 – 박상환

27 전영애 『독일의 현대문학』 – 최문규

루이스 『중동의 역사』 – 김건우

28 에델만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 백도형

모리스 스즈키 『일본 기술의 변천』 – 오동훈

종합서평 29 김인숙 『유리구두』, 이혜경 『그 집앞』 – 김미현

이 책 그 사람 30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펴낸 권오창씨

〈이뤘고〉 펴낸 이청씨

31 『환경에 관한 오해와 거짓말』 펴낸 이항규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⑩ 주명덕 『섞여진 이름들』

표지 사진/한준호